

버리기 전 ‘세척·건조’로 재활용 ‘골든타임’ 지킨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5년

(하)일상 참여 핵심

각 가정 배출 품목 회수센터 이송
선별→민간업체 판매→재탄생
자원 순환...오염 등 폐기도 상당
“잘” 버리는 게 시작...관심 절실”

“오염이 심한 것들은 재활용이 어려워 폐기 처리됩니다. 세척·건조 등을 거쳐 ‘잘 버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3일 오후 2시께 광주 서구 세하동 자원회수센터 선별장 내부에는 알루미늄 캔과 투명·일반 페트병, 유리병, 스티로폼 등 비닐봉지에 쌓인 재활용품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안전모와 마스크를 착용한 작업자들은 비닐 봉지를 하나하나 터, 안의 내용물을 한 곳에 모은 후 다시 하나하나 골라내기 시작했다.

‘수선(手選)’ 공정이라고 불리는 이 작업은 내



23일 광주 서구 세하동 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직원이 수거된 재활용품들을 수선(手選)하고 있다./이연상 기자

·외부의 이물질 제거해서 재활용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

다만, 음식물로 인한 오염이 너무 심하거나 파

손 정도가 심해 재활용 가치가 없을 경우 폐기물로 처리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재활용품은 컨베이어 벨

트를 따라 이동하며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유리 등으로 분류된다.

플라스틱은 다시 투명·유색 페트병으로 나뉘고 종류에 따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등으로 세분화된다.

세분화가 끝난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압축된 후 일정 물량이 모이면 민간 업체에 판매되고 세척과 분쇄, 가공 과정을 거쳐 새로운 물품의 재료로 쓰인다.

이 중 투명 페트병의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달리 다시 페트병으로 사용하는 BtB(Bottle to Bottle)가 가능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품목이다.

이에 ‘자원 순환’을 위해 광주 5개 자치구 곳곳에는 재활용품 선별장(자원회수센터)이 조성돼 있다.

행정 당국 중에서도 서구와 동구는 민간 위탁만 준 다른 자치구와 달리 직영으로도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한다.

각 센터마다 재활용품 수거 대상 구역과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처리 방식은 같아 겪는 어려움도 비슷하다.

서구자원회수센터 관계자는 “페트병 같은 플라스틱은 전체 반입량 중 20% 가까이 재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별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폐기되는 양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구자원회수센터가 올해 1~10월 수집한 재활용품의 총량은 약 365만570kg이다. 가장 많은 종류는 플라스틱으로 전체의 18% 정도인 65만7천950kg이 수집됐다.

하지만 실제 선별을 거쳐 재활용품으로 판매된 플라스틱은 52만3천680kg이었고, 투명 페트병은 3만7천300kg에 그쳤다.

이에 대해 서구자원회수센터 측은 “음식물 등으로 오염된 재활용품은 수선 공정을 거쳐도 상품성이 떨어진다”며 “수집과 이송 과정에서 오염이 심한 재활용품이 주변의 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어 “때문에 투명 페트병을 비롯한 재활용품이 정말 재활용 되기 위해선, 세척·건조 등을 통해 좋은 품질을 유지한 채로 배출돼야 한다”며 “결국 분리배출제의 성패는 일반 시민의 참여 의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내년부터 생수 및 음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재생 원료 10% 사용이 의무화되지만, 순도 높은 투명 페트병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면 해당 제도는 지킬려 해도 그럴 수 없게 된다”며 “지속 가능한 환경 유지를 위해선 그 어떤 제도보다 중요한 게 개인 스스로의 참여”라고 강조했다.

/이연상 기자

“단단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안전규정 위반”

권익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제기

의안서 ‘파손 쉬운 재질 설치’ 권고

유가족協 “정부, 공식 사죄하라” 촉구

국민권익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에 대해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시설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협의회 측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신청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사설 설치 부당’ 의안과 관련,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다시 설치할 것을 전담 권고했다.

앞서 유가족협의회 측에선 로컬라이저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 부러지기 쉽게 설치돼야 하나, 무안공항의 경우 콘크리트 둔덕에 있었다며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는 적법 시설을 주장했다. 권익위는 로컬라이저를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라 할주로 종단안전구역에 포함되는 시설

로 보며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권익위의 판단을 두고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의 중대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시설물임이 확인됐다. 이는 참사가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였음을 국가기관이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권익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참사 1주기에 앞서 국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안재영 기자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의결...총파업 유보

철도 성과급 지급 기준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전국철도노조의 총파업이 다시 한 번 유보됐다.

23일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상정한 성과급 지급 기

준 안전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철도 성과급은 2026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가 지급될 전망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80%만 지급하는 현 성과급 체계를 차별로 규정하며 정상화를 요구, 총파업을 예고해 왔다.

철도 성과급 문제는 2010년 코레일이 임금 관련 자료 제출을 지연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80%로 제한된 이후 15년간 이어져 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12시10분께 노조 측에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공문위에 상정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고, 노조는 오전 9시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윤창용 기자

약식 불복·재판 청구 뒤 불출석 50대 결국 ‘구인’

경찰, 재판 일정보다 일찍 인계

별도 공간 없어 방청석에 대기

도주 우려·타인 안전 등 ‘불안’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놓고선 출석하지 않은 50대가 결국 구인당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3일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5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 모처에서 피해자 B씨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공소 사실로 A씨는 벌금 3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정식 재판은 지난달 20일 처음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A씨가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연기됐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경찰은 이날 A씨를 구인해서 오전 10시께 재판부에 인계했는데, 이후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연출됐다.

A씨에 대한 사건 진행 예정 시간은 오전 11시

30분으로, 그때까지 대기할 ‘별도 장소’가 없어 A씨는 다른 불구속 피고인 또는 방청객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재판 시작까지 함께 기다렸다.

그러던 중 법원의 연락을 받은 A씨의 변호인이 예정 시간보다 법정에 빨리 도착하면서 그에 대한 재판은 순서가 앞으로 당겨졌고 인치 약 15분 만에 진행됐다.

다행히 대기 시간 동안 도주 시도 등 별다른 소동은 없었지만, 구인의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발부했던 피고인이었던 만큼 원활한 재판 진행과 다른 이들의 안전 등을 위해서라도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통상 구인 영장의 인치 장소는 재판이 진행될 법정이고, 구속 영장이 아니다 보니 구속 피고인이 대기하는 곳으로 안내할 수도 없다”며 “대기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법정 내 보안 관리대는 메뉴얼에 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구속영장 발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A씨가 선임된 국선 변호인과의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는 다른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다음 재판은 내년 3월5일 재개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티 품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통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통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